

경제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은 녹색성장전략으로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 강 성 진

I. 서 론

작년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미래 60년을 향한 국가발전패러다임의 변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경제발전전략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였다. 녹색성장(Green Growth)이란 ‘신재생에너지기술, 에너지·자원효율화 기술, 환경오염 저감기술과 관련 융합기술 등 녹색기술에 기반으로 한 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하여 경제·산업구조는 물론 삶의 양식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국가발전 전략’이다(미래기획위원회, 2009). 따라서 동 전략을 단순히 환경과 경제가 상호 시너지 효과를 갖는 형태의 발전전략으로 해석한다면 너무 협의의 개념으로 접근한 것이다.

본격적인 녹색성장이 등장하게 된 것은 1987년 국제연합의 환경과 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우리 공통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 발표이후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추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2005년 서울에서 열린 5차 아시아 태평양 장관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발전전략으로 녹색성장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녹색성장을 위한 서울 이니셔티브로

불리는 이 선언은 한국의 압축고도성장에 따른 환경훼손 경험을 토대로 이러한 전략에서 탈피하여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상태를 추진하고자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많은 논의를 종합해보면 지속가능 발전은 사회적(형평, 비배제, 권한부여 등), 경제적(성장, 효율, 안정 등) 그리고 환경적(자연자원고갈, 오염 등)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을 상호 대립적이지 않게 윈-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합해 나가는 발전상태라고 할 수 있다.

녹색성장전략은 지속가능발전 상태의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경제발전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통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달성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경제발전전략을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경제발전전략에서 탈피하여 미래 60년은 새로운 경제발전전략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성장방식이 요소투입위주에서 기술혁신·생태효율위주, 핵심가치가 양적성장에서 삶의 질을 강조하는 지속가능 성장, 환경과 경제가 상충되는 관계에서 상호 보완관계, 성장동력이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서 녹색기술·녹색산업 중심, 그리고 사회구조도 에너지 낭비·환경오염 형에서 저탄소 시스템 형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II장에서는 녹색성장이 등장하게된 국내외적 배경을 알아보고 녹색성장이 지속가능발전과의 관계를 알아본다. III장에는 녹색성장정책을 알아보고 IV장에서 녹색성장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과제를 알아본다.

II. 녹색성장의 등장 배경과 개념

1. 국내외적 등장 배경

지금 한국에서 주요한 경제발전전략의 변화로 대두되고 있는 녹색성장전략이 등장하게 된 것은 전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가 지속되어 환경위기가 악화되고 있고 그 정도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는데서 출발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후변동은 불가항력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류의 경제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인간의 행위에 의해 야기되었다는 점이다.

제4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보고서에 의하면 기후변화는 앞으로 지속될 것이고 점점 더 심각하게 진행되어 기상재해, 해수면 상승, 사라지는 빙하 등 지구와 인류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교토의정서상의 6대 온실가스 배출량은 1970-2004년에 70%가 증가하였고 1990년 이후는 24%가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에 이산화탄소는 약 80%가 증가였고 2004년 전체온실가스 총배출량의 77%를 차지하고 있다(UNIPCC 4차 보고서, 2006 Stern 보고서).

인류의 활동에 의해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쉽게 알 수 있다. 1750년 산업화 이전 대기 내 탄소농도는 280ppm로 거의 안정적이었으나 산업혁명기를 거치면서 급격히 증가하여 2007년 380ppm에 이르러 매년 2ppm이 증가하였고, 지난 100년 동안 메탄과 이산화질소 같은 온실가스로 지구 평균기온은 약 0.75℃ 상승하였다

(Munasinghe, 2008).

현재와 같은 에너지 다소비체제가 지속될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만도 매년 세계 GDP의 5-20%에 달할 전망이고 지구평균기온이 2℃ 상승시 15-40%의 동식물종이 멸종하고, 3~4℃ 상승시 약 2억명 이상이 이주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2006, 스텐보고서).

기후온난화의 진행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세계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53년 27억명이던 것이 2053년에는 92억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UN보고서). 따라서 폭발적인 인구증가와 동시에 상대적으로 개도국의 인구증가폭이 크다는 것은 빈곤탈출을 위한 경제개발 욕구가 상대적으로 크고 따라서 에너지 수요의 급증을 불러 올 것으로 예측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주요 에너지원의 가채연수도 많이 남아 있지 않다고 보여져 고갈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원유의 경우 39년, 천연가스 59년 그리고 석탄이 114년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우리의 에너지 소비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 대한민국은 2007년 현재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으로서 총에너지의 97%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이는 총수입액의 27%를 차지할 정도로 에너지 수입비중이 매우 높은 나라이다. 이는 반도체와 자동차의 전체 수입액을 합한 액수보다는 큰 액수이다.

우리는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에 직면하여 좋은 환경을 유지하면서 경제성장을 지속해야 하는 미래 과제에 대처해야 하는 시점에 직면해 있다고 하겠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명박대통령이 2008년 7월 일본 도야코 G8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자는 범세계적 장기목표에 적극 동참하여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의 중

기목표를 국민적 합의를 거쳐 발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더욱 구체화하여 2008년 8.15 경축사를 통해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할 청정에너지, 녹색기술에 대하여 총력투자를 강조함으로써 녹색성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의한 환경위기,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대한 욕구 증대,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인구증가 지속, 그리고 한정된 환경자원 등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들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현실적 상황에서 경제발전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미래발전전략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녹색성장전략이다.

2. 녹색성장 개념

녹색성장은 경제와 환경이 상충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양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 개념에서 출발한다. 경제성장이 환경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성장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을 새로운 동력으로 삼아 경제성장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즉, 녹색성장(Green Growth)이란 신재생에너지기술, 에너지·자원효율화 기술, 환경오염 저감기술과 관련 융합기술 등 녹색기술에 기반으로 한 녹색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하여 경제·산업구조는 물론 삶의 양식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국가발전 전략이다(미래기획위원회, 2009).

녹색성장이란 새로운 문명, 새로운 질서를 수용하는 복합적이고 열린 개념으로 국민과 정부, 기업과 시민사회가 공유된 비전을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계속 변화·발전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공식적으로는 등장하게 된 것은 2002년 지

속가능 발전세계대회에서 2005년까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라고 촉구한 데서 출발한다. 2005년 3월에 열린 5차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각료회의에서 녹색성장을 빈곤완화와 환경보존이라는 모순 될 것 같은 두 개의 발전방향을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정책적 전략으로 채택하였다.

녹색성장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녹색이라는 환경과 성장이 서로 상생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환경과 성장이라는 두 가치는 어느 하나를 위해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레의 두 바퀴처럼 서로 균형을 잡고 양립하면서 공동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중요한 가치인 것이다. 따라서 경제성장이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환경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전환되는 윈-윈 전략이 것이다.

3.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

녹색성장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1987년 국제연합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의 수립을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등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속가능 발전이란 주요한 구성요소로서 사회적(형평, 포용, 역능성, 가치 등), 경제적(성장, 효율, 안정 등) 그리고 환경적(자연자원고갈, 오염 등)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을 상호 대립적이지 않게 윈-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합해 나가는 발전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 논의가 시작되기 시작한 것은 1987년 국제연합(UN)의 환경과 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우리 공통의 미래’라는 보고서에서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 후 2005년 서울에서 열린 5차 아시아 태평양 장관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발전전략으로 녹색성장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녹색성장을 위한 서

을 이니셔티브로 불리는 이 선언은 한국의 압축고도 성장에 따른 환경훼손 경험을 토대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모델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단순히 환경과 경제성장과 관계를 넘어서 사회적 발전 예를 들어 소득분배, 빈곤 및 역능성의 정립까지 포함하는 더욱 폭넓은 발전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전략방향으로 녹색성장전략을 채택했다고 보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으로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통해 성장률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면서, 환경적으로 지구온난화 및 자원위기에 대응하는 구체적 행동을 전제로 한 개념인 것이다.

Ⅲ.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1. 녹색성장은 미래발전전략

전통적인 환경관리정책은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이나 폐수를 정부가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정책은 비록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고 할지라도 경제성장과정에서 소득 증가를 통한 빈곤탈출과 소득분배 개선이라는 이득을 획득하려는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는 없었다. 이는 비록 미래세대에는 환경악화라는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지만 현재 세대에는 이 문제보다는 오히려 현재의 부의 증대를 더욱 추구할 유혹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축소지향적이고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에 의한 환경정책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소득격차를 확대시키게 된다. 왜냐하면 선진국일수록 요소투입보다는 지식 및 기술집약적 산업을 주요 성장산업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염배출이 적은 생산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개발도상국은 요소투입

형 생산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환경규제정책을 상대적으로 이들에 대한 생산을 더 많이 줄이게 되어 경제성장을 통한 빈곤완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어렵게 된다. 이는 국제연합(UN)이 시행하고 있는 10개의 밀레니엄개발목표(MDG)중에서 빈곤완화(MDG 1)와 환경보존(MDG 7)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워진다는 모순에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직접적 규제방식의 환경정책은 환경관리 성과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투자의욕을 약화시켜 경제발전에 오히려 저해가 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녹색성장은 환경정책이 경제발전과 대립이 되지 않게 하는 새로운 국가비전정책이다. 녹색성장정책의 추진은 환경과 경제성장이 상충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양자 간의 선순환 관계가 가능하며 이들 간의 상호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추구하려는 정책방향이다. 예를 들면, 경제성장이 환경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개선하게 되고, 녹색에너지 개발 등을 위한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이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상호 선순환적인 구조를 갖는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자원고갈 및 가격급등에 따라 기존의 “요소투입” 위주의 경제성장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한계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최근의 경제위기에서 알 수 있듯이 자원·에너지가격의 급등에 따라 자원 및 에너지의 대량 투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는 경쟁력을 상실하여 성장이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지구온난화가 진행될수록 저탄소 경제로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국제규제를 통해 강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된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현실화됨에 따라 인류생존 및 경제성장을 위

해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적 공조 및 규제는 불가피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에 직면하여 이제 우리에게도 저탄소, 친환경 자체가 새로운 성장을 이끌어낼 전략산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녹색성장이론의 등장으로 국가발전 전략 패러다임의 변화를 목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발전전략, 국민의 삶의 질과 환경 개선하고 기후변화 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1석 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미래국가 비전이 될 것이다.

첫째, 신성장동력 확충을 통한 신(新)국가발전은 녹색기술 및 녹색 산업을 새로운 동력으로 삼는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환경훼손과 경제성

	기존 패러다임	➔	녹색성장 패러다임
성장 방식	요소투입 위주	⇒	기술혁신 · 생태효율
핵심 가치	양적 성장	⇒	삶의 질, 지속가능한 성장
환경과 경제	상충관계	⇒	상호 보완관계
성장 동력	에너지 다소비 업종	⇒	녹색산업 · 녹색기술
사회 구조	에너지 낭비, 환경오염	⇒	저탄소 시스템

2. 녹색성장 추진전략과 정책

녹색성장은 사실상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다.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점은 친환경과 경제발전이라는 두 목표가 상호 상반된다고 인식을 하고 있어 왔다는 시각이 녹색성장전략이 대두되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갈 수 있다는 새로운 국가 패러다임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로 자동차의 경우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하이브리드카가 개발되어 이미 판매되고 있다. 하이브리드카가 시장에 나오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경과되었다. 또한 이 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미래산업은 이러한 친환경산업 중심으로 전환될 것이고 이는 곧 신성장동력임을 의미하고 이 산업이 실현되면 인간 삶의 질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녹색성장은 신성장동력의 확충을 통한 신국

장의 탈 동조화(decoupling) 추구를 의미한다. 이의 실현방안으로 재생 및 청정에너지를 포함한 환경친화적인 자원활용기술인 녹색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고부가가치 ‘지식집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 제고하여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우리경제가 직면한 “일자리 없는 성장” 문제 치유한다.

둘째,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이다. 저비용 · 고효율의 공간 및 주택개발을 통해 교통혼잡 · 환경오염 등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 등 환경오염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생활 속 녹색문화 실천으로 사회전반의 포괄적 변화 유도하며 기상재해, 건강피해 등 기후변화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장한다. 또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범지구적 문제에 선도적 대응하고 개도국 지원 등

국제사회 기여를 통한 국가의 품격과 이미지를 제고한다.

셋째,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이다. 저탄소사회를 구축하고 탈석유·에너지 자립을 추구하며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역량을 강화한다.

IV. 결 론

지금까지 녹색성장전략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알아보고 이 성장전략이 현 정부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해 보았다.

녹색성장이론이 등장하게 된 것은 국내외적으로 직면하게 된 기후 온난화, 인류의 경제발전 욕구, 인구 증가, 자원고갈의 위험성 등의 환경 및 경제발전이라는 모순될 것 같은 두 목표 상호 시너지 효과를 주면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가 하는 문제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각종 녹색 조세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환경오염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을 시장기구내부로 내

부화하는 정책이 실시되어야 하는데 이는 친환경과 경제성장문제가 정부만 아닌 민간시장을 통하여 동시에 달성되어 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직접적인 규제정책에서 탈피하여 민간부문과 상호 역할 분담을 통하여 친환경-경제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와 민간부문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간접적 유인정책을 통하여 공급과 수요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하고 민간도 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적용하여 미래의 새로운 산업구조변화에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녹색성장은 살아있는 개념으로서 새로운 문명, 새로운 변화와 질서를 수용하는 열린 개념으로서 정부, 국민, 기업과 시민사회가 주체별로 공유된 비전을 바탕으로 하여 창의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이는 미래 우리의 삶의 질을 저탄소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미래산업전략이며 국가발전 패러다임의 변환을 반영하는 새로운 국가경제발전전략임을 유의해야 한다.

참 · 고 · 문 · 헌

강성진, 2008, 저탄소 녹색·신성장동력 산업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고려대학교

강성진, 2009, 녹색산업의 경제파급효과와 국토관리전략, 국토, p. 29-39.

미래기획위원회, 2008,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안).

미래기획위원회 편, 2009, 녹색성장의 길, 중앙 북스.

Munasinghe, Mohan, 1995, "Making Economic Growth More Sustainable," *Ecological Economics*, 15, 121-124.

Munasinghe, Mohan, 2008, "Address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limate Change Challenges Together: Applying the Sustainomics Framework," Keynote Speech of Beijing Forum 2008.